

다. 沙工은 더 많았을 것이나 여기는 都沙工만 代表해서 列名하였을 것인데 奴子 使令에 이르기까지 記名시킨 것은 生命을 걸고 이 섬에 온 一行에게 自然히 생긴 團合心과 親近感에서도 나온 것이 아닐까 何如튼 글씨나 碑石이나 素樸한 것이나 鬱陵島史의 資料로서 重要함에는 틀림없다.

## 바리의 高麗鐘

崔 淳 雨

지난 한 겨울을 巴리에서 보내는 동안 Ceruschii博物館長 Eisseelt氏와 함께 同博物館 地下倉庫를 살살이 뒤져본 일이 있었다.

이 博物館에는 아직도 整理되지 않은 遺物이 적지 않고 이 未整理 遺物中에 혹시 韓國遺物이 섞여 있거나 없을가 하는 것이 우리의 期待였다.

이 建물이 아직도 Ceruschii氏의 豪華로운 邸宅이었을 무렵에는 아마

도 이 倉庫는 芳醇한 삼관이나 葡萄酒 통들이 쟁겨 있었던 땅판이었던듯 아직 도술향기가 가지지 않은 듯한 느낌은 筆者의 好酒僻 때문만이였을까



第三卷 第七號 通卷二十四號

은 金屬遺物들이 ぱ악이 드러서 있었고 이들 잡동산의 틈에 끼어 우리 高麗鐘一個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먼지를 만진 헛수고를 면한 셈이었다.

이 鐘은 總高三一·五 cm 鐘身高二五 cm 口徑二二 cm 口緣 두께 三 cm의 小鐘이었으며 多幸히도 數字에 達하는 다음과 같은 點刻銘文이 있어서 注意를 끌게 했다.

至大四年 辛亥二月 日

智峯且閑

香徒清信戒女等

造上藥師菴小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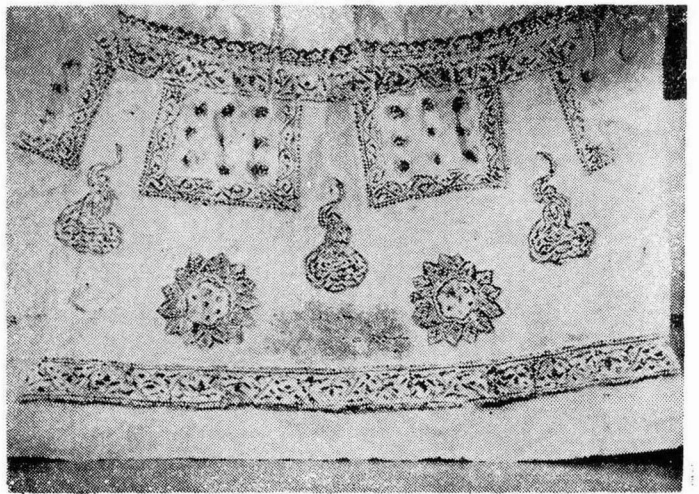
鑄成□□□□富

同願

□□女

加叱同

이상 至大四年 辛亥은 元武宗四年 西紀一三二一年에 該當하며 이 刻文이 元來 字劃이 稚拙不分明해서 缺字들을 모두 判讀할 수 없었음은 유감이었다.



地金色는 磨研된 部分에서 赤銅色에 가까운 色을 보이고 있는 것이 異色的이었으며 鐘身은 全體가 검은色 主調의 烏銅色 色이 덮여 있었고 鐘體는 大體로 厚朴한 느낌이며 四爪龍鈕와 鐘身內部로 貫通된 四珠角筒이 비교적 均衡 잡혀 보였다. 鐘의 上緣은 如意頭狀의 陽鑄立華形帶로 둘러있고 上帶와 下帶는 蓮唐草狀의 陽鑄草文으로 되어 있으며 역시 草文帶로 된 四個處의 乳廓內에는 各其九乳가 圓形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四個의 乳廓사이의 間地에는 各其 合掌飛天像이 陽鑄되어 있고 各乳廓의 下部에 位置해서 四個의 蓮華座가 陽鑄되어 있는데 이 各部陽鑄文들은 流麗하다기 보다는 稚拙을 不免했다는 느낌이이다. 그러나 朝鮮鐘本來의 各部樣式을 具全한 在銘鐘의 一例로서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鐘의 收藏番號는「九八二」로 되어 있으나 이에 關한 收藏由來도 밝힐 記錄은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Carnuschi氏自身이 一八〇〇年代末 期에 日本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상 旅寓에서 詳考할 아무 資料도 가진 것이 없이 不分明한 이 短文을 草하게 된 것을 널리 謝過한다.

一九六二、五、二四 저녁 Wien 市에서

### 百濟 石製小像斷片(其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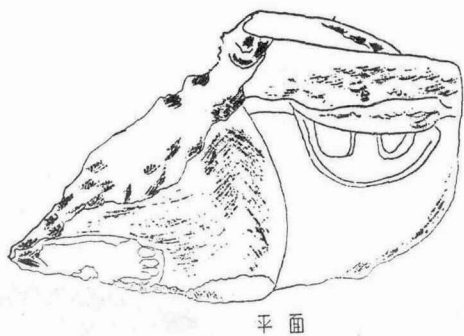
黃 壽 永

近年에 이르러 百濟末期의 作品으로 推定되는 摩崖三尊像 兩例의 發見이 있었고(瑞山郡雲山面과 泰安面) 또 石像으로써 如來座像 一軀(三國最大의 光背는 別石임)과 一光三尊像이 再調되었거니와(益山三箕面蓮洞里) 國都 扶餘에 있어서는 그들과 같은 巨像의 新例는 發見된 바 없고 오직 小像 破片 若干例를 增加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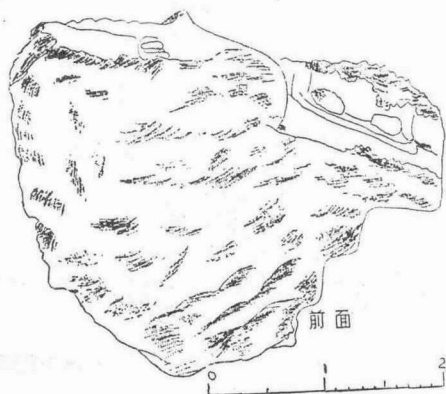
(1) 三尊石像片……一九六〇年頃 扶餘邑 佳增里 밭갈 洪思云氏로부터 入手된 것인데 洪氏談에 의하면 邑內 舊教育區廳에 隣接된 씨비스工場 附近의 地表에서 偶然히 拾得한 것이라고 한다. 橫一・五cm 高八cm 에 不過한 靑綠色의 蠟石片으로서 佛像下端部와 臺座一部만을 남기고 있다.

上面中央에는 座像으로 推定되는 本尊左膝의 隆起된 三角部만이 남았는데 그 前端上에는 反掌된 右足指가 길게 새겨져 있어 跏趺像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本尊 左後의 同一平面上에는 圓座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는 兩足만이 나란히 새겨 있을뿐 그 以上은 缺失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左右對稱의 手法으로 작은 菩薩立像이 配置되었던 것으로 推定되었다. 또 本尊膝部와 脇侍像 身部下端과의 사이는 連結되었고 그 上斷面과 水平을 이룬 背面殘基에서 미루어 이 三尊像이 光背를 具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脇侍像이 놓인 臺座의 側緣部는 原形을 남기고 있으므로 脇侍立像은 臺座兩端에서 光背의 兩緣을 이루고 配置되었다고 推定되는 바 이것은 當代 金屬製 三尊像에 있어서의 手法과도 同一하다)

다음에 下部는 臺座인 바 二段의 層級形을 이루고 있을 뿐 그 以下는



平面



前面